

세상이 뒤집어 질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교외에  
Week 10: On the Outskirts

“하늘 나라가 땅에 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 예수님은 종교와 규 칙보다 자비와 자유에 훨씬 더 관심이있다.
- 현재 문화적인 순간에 “지구의 끝”은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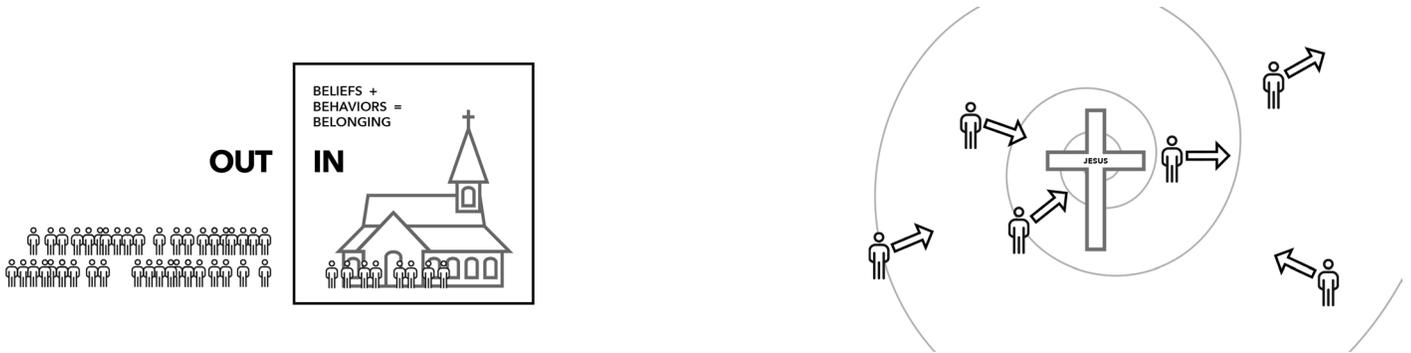
사도행전 Acts 8:26-40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27.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 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38.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39.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40.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몽유병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잊어버렸던 것에 깨어난다”

“영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며, 우리는 정신적인 기계

가공으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놓칠 것입니다.” -에이미 오덴 박사

우리는 듣고 있는가?

변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변화는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본질입니다.

축복기도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는 남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 곳에 하늘의 선물을 가져다주고, 빨리 듣고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